

법무매거진

이종석 헌법재판관,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에 지명될 것



법조인 동정

-대통령실 ‘이종석 가장 유력’...18일 지명 가능성

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(62·15기)을 오는 1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.

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‘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’이라며 ‘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’이라고 말했다.

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.

통상 헌재소장 퇴임 3, 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.

18일 지명 가능성이 제기되나 정확한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.

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(현 국민의힘)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며, 앞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,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.

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.

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.

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1년의 잔여 임기밖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자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으나, 윤 대통령이 결국 이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.